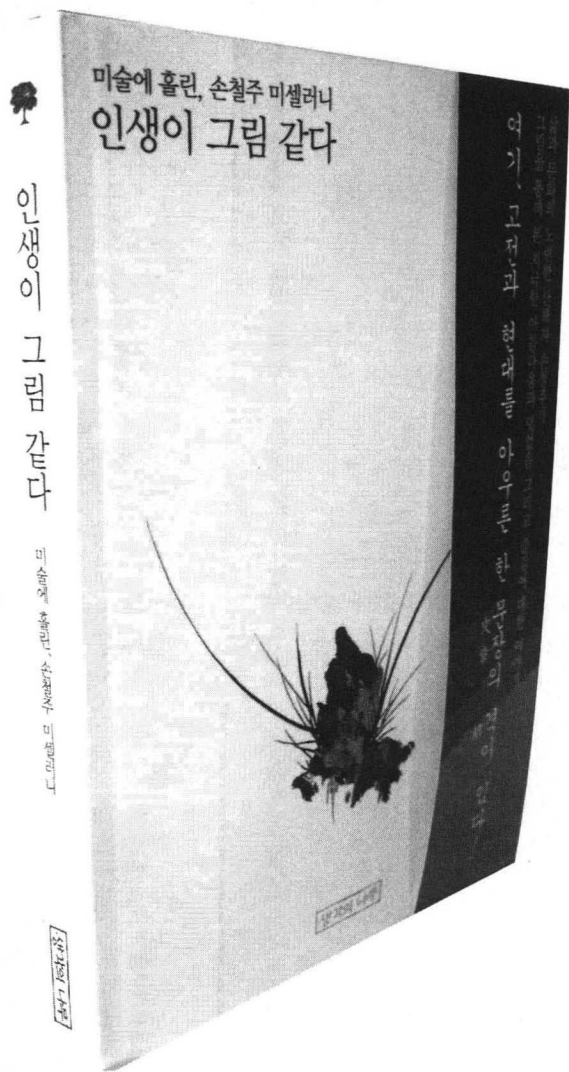


# 손철주의 인생초상화 그 '리얼리즘과 판타지'

글\_임동현



《인생이 그림 같다》 손철주 지음 | 338쪽 | 값 12,000원

### ● 이 글을 쓴 임동현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기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2006년을 며칠 앞둔 지점, 한 시사주간지는 연탄 배달하는 할아버지를 표지 인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40년간 연탄 가게를 운영하는 김종록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의 이야기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는데, 1960년대 중반 한남동과 청계천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곳 사람들이 이주한 상계동 111번지 일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말하자면 당고개 역에서 희망촌까지 이르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촌, 희망촌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거주 형태를 통해 빈부격차의 근간을 이 기사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40년 동안 연탄 가게를 한 김종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희망촌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달 동안 연탄 배달해서 버는 돈이 30만 원에 불과해 하루는 연탄배달, 하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투잡스 족으로 버터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카메라 기자의 부과인더에 잡힌 김 할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다. 기름값이 너무 뛰어서 희망촌 사람들에게는 연탄이 희망이고, 그들에게 연탄을 배달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얘기가 곁들여진다.

새해 벽두부터 달동네 이야기를 하려는 심사는 아니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관측하는 눈의 날카로움이 어떤 사유를 낳는가 이야기하려는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노원구 상계동 111번지 일대의 희망촌 이야기 속에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등장하게 되는 빛과 그림자 중 그림자의 메뉴 성격이 짙게 가미돼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실은 궁핍화되 기사화된다고 해서 궁핍함의 질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여기 손철주의 《인생이 그림 같다》는 책이 있다. '미술에 홀린, 손철주 미셀러니'란 부제에서도 얼마간 암시하고 있지만 이 책은 미술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미술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잣대로 노원구 상계동 111번지를 조명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손철주 식의 그림 보기를 넘어서 손철주 식으로 그림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의 유장한 문장과 경계를 초월하는 인문정신은 현기증을 일으키게 할 만큼 분방하다. 예컨대 미술작품에 대한 엄숙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엄숙성에 주눅들린 사람들을 위해 열어놓은 또 하나의 창이 걸판지고 유쾌하다는 뜻이다.

손철주 식 그림 읽기의 특징 중 하나는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추억 상품'이란 꼭지명을 매단 곳에서 손철주는 러시아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초상화를 삽입한

‘도스토예프스키 로또’ 이야기를 들추어낸다. 이 복권이 발행되자 도스토예프스키의 유족들은 복권 발행사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초상화를 쓰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 있다. 도스토예프스키 초상화는 러시아의 바실리 페로프가 1872년에 그린 것으로,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로또 복권에 초상화가 실림으로써 죽은 자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손씨는 이런 사례를 일컬어 ‘다중의 추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꼴’이라고 언급한다. 이를테면 노름빛에 쫓기던 도스토예프스키가 마감에 시달리면서 써낸 작품이 <죄와 벌>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천하의 명문은 시간에 쫓긴 후에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억이란 단지 ‘봄소풍처럼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손씨의 결론인 해설이다. 이쯤 되면 손철주의 그림 이야기는 그림이란 텍스트를 벗어나 그림 안팎에 흐르는 전방위적 문화사를 훑는 역동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손철주는 ‘추억에 대한 구상권’에서 체 게바라를 등장시킨다. 이야기는 체 게바라의 사진을 보드카 광고에 써먹은 광고 대행사가 체 게바라의 사진을 찍은 작가에게 고소당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체 게바라가 누구인가. 그는 혁명이 있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 달려갔다는 사람이다. 더구나 그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자본주의도 반대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보드카 판매에 이용됐다는 것은 체 게바라의 이름과 추억을 더럽힌다는 것이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의 주장이다. 이 소송 건에 대한 손철주의 주장 역시 이색적이다. 그 소송은 한마디로, ‘개인의 추억이 다중의 추억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철주는 독자들에게 요구한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 추억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라고 할지도 모르니 추억의 정조를 잘 간직하라고 말이다.

미술평론가 이주헌은 손철주에 대해 ‘그는 완상가이다. 세상이 팽팽 돌아도 그는 그걸 슬로 모션으로 볼 줄 안다’고 했다. 소설가 김훈은 ‘그의 눈은 끊임없이 빛어지고 스러지는 세상의 모든 빛깔과 선과 형상을 좇아다니며 노느라고 바쁘다’면서 ‘손철주는 한 생애를 다해서 관능의 일탈과 자유를 도모한다. 도모는 곧 해매기’라고 썼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노원구 상계동 111번지의 삶 속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희망촌 사람

들은 ‘희망촌 사람들이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을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의 말에 한마디로 일갈한다. ‘취재할 게 뭐 있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구 그런 거지.’ 이쯤 되면 촌철이다. 물론 희망촌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촌이 위치한 상계4동 대부분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2006년 6월 이후에는 철거에 들어가고, 40평대, 30평대, 20평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촌에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 입주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타운 지정은 희망촌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도시의 외연은 넓어지지만 주변부를 메우는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기 마련인 것이다. 재개발이란 이름은 빈곤층을 끊임없이 밖으로 내모는 관성을 일으킬 뿐이다.

‘인생이 그림 같다’는 손철주의 미셀러니들을 보면서 뜬금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 있다. 그림은 그동안 동어반복의 수사를 계속해 온 평론가들에 의해 그림 자체로서만 평가돼 온 측면이 있다. 그림이 생산돼 온 외연의 깊이를 캐는데 소홀했거나 미흡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손철주의 《인생이 그림 같다》는 상계동의 희망촌을 극사실주의로 노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생생과 마모의 결을 따지듯이 그림 자체와 작가의 삶을 관통한다. 그림으로써 그림 저 너머의 세계에 있는 인생까지 끌어안은 흡인력을 발휘한다.

손철주가 초상화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한 대목에 따르면 ‘서양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모델과 화가의 거리는 1.5미터에서 2.5미터 정도로 잡는다. 전신상은 모델 키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인 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업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이 가장 긴밀한 느낌을 가지려면 얼마의 간격이 적당할까. 그 간격은 얼굴 길이의 2.5배가 적당하다고 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살가운 거리라는 것이다.

자, 이제 생각해 볼 일이다. 상계동 111번지 희망촌을 어떤 간격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인생이 그림 같다》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좋을까. 전자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보고 말하라는 것이 정답일 것이나 후자에 대해서는 손철주의 그네에 올라타라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하나는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이거니와 하나는 판타지인 것, 울림은 다르지만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데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